

# 새해에는 장기목표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해야

글 최강원 | 분회 회장 서울대 의과대학 감염(관) 교수



어느덧 한해가 저물고,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다. 근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에이즈의 도전은 새해에도 계속될 것이다. 어느 시대에도 전염병의 대유행에 의한 도전은 있었다. 중세의 페스트나 근대의 콜레라, 반복되는 인플루엔자의 세계적 유행 등 전염병의 폭발적 대유행은 당대의 세계에 엄청난 희생을 강요하였다.

지금 인류가 식면하고 있는 에이즈의 세계적 대유행은 역사적으로 악명을 떨친 이들 모든 질병들을 능가하고 있다. 전 세계에 걸친 유행지역, 급속한 확산 속도, 엄청난 희생자수, 끝이 보이지 않는 유행의 지속 등을 볼 때, 에이즈는 지난날의 어떤 전염병의 유행보다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 우리 현회는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우리나라에서의 에이즈 확산을 저지하고, 이미 감염된 이들의 인권과 복지를 증진하는 막중한 임무를 지고 있다.

매년 연말에 발표되는 UNAIDS의 세계 감염 현황은 아직도 에이즈 유행의 상승곡선이 전반적으로 수그러들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유행의 불길은 우리와 이웃한 아시아 지역, 특히 동아시아 지역으로 급속히 퍼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유행의 문턱에 휩쓸려 들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는 '우리는 안전하다'는 잘못된 껍에서 깨어나야 한다. 일시적 행운은 있을 수 있고, 남보다 다소 늦게 유행이 시작될 수는 있으나 우연과 행운에 우리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다. 오직 자기의 노력으로 에이즈를 극복한 나라만이 에이즈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며, 그러한 나라조차도 자기 만족이나 케으름에 빠지면 위험은 다시 되돌아오는 것을 세

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확인된 감염인 수가 세계 다른 지역보다 적다는 것은 사실이나 이 사실이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위안이 될 수는 없다. 더구나 우리가 에이즈 예방과 퇴치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도 된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도 더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나는 대한에이즈예방협회가 이런 노력의 선봉에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의 이런 노력이 에이즈 확산 방지에 기여했다는 것을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민간단체 내지 우리 국민의 자발적 노력은 결코 만족할 만한 수준은 못 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국민의 에이즈 내지 예방에 관한 지식이나 의식 역시 미흡하며, 우리의 교육·홍보 노력의 부족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도 에이즈에 대한 관심과 노력 면에서 세계적 평가를 받을 만하다. 그러나 정부나 민간단체 모두 장기적이고 일관된 계획에 따른 에이즈 예방관리를 위한 포괄적 프로그램이 미흡한 점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새해에는 보다 장기적인 목표 아래 일관성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우선 역점을 두고자 한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물론 좋지만, 우선순위와 비용·효과의 문제를 항상 따져서 선후를 가려야 하겠다.

에이즈 예방과 퇴치라는 공통된 목표 아래 부을 아끼지 않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개인이든, 단체나 정부든-은 새해에는 더욱 더 성공적인 결실을 기부도록 매진하자. 그리고 여러분 모두 밝고 희망에 찬 새해가 되기를 기원한다.